

정화의 작업자들



재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St.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

형제회: 성 김대건 성당 849 Don Mill Rd, Toronto, ON M3C 1W1

연락처: 22 Royal Palm Dr, Thornhill, ON L4J 5R3

Tel: 905-889-6518 E-Mail: sunlee333@hotmail.com

형제회 일시: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:00 시

제 37 호

8 월 형제회 소식

2008 년 8 월 30 일

오늘 월례회 순서

- 오전 10 시 - 리따 수녀님 영성 강의
- 오전 11 시 - 미사
- 오전 11 시 45 분 - 월례회
- 오후 1 시 - 친교

형제회 소식

- 다음 달 월례회는 9 월 27 일(토) 한맘 성당에서 오전 10 시에 시작할 예정입니다.
- 오상열 부회장님의 모친(남정술)께서 향년 92 세로 한국 시간으로 지난 7/30, 오전 1 시 40 분경 대구 노인전문병원에서 노환으로 선종하셨습니다.
- 길우배(클레멘스)형제님의 여동생이신 길미자(베로니카)자매님께서 8/23, 오후 5 시 15 분에 향년 65 세로 프린세스 마가렛 병원에서 선종하셨습니다.
- 금년 10/10~10/12 까지 "부르심과 응답"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연례피정에 참가를 희망하시는 회원들은 피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- 제 4 기생 지원반 모집에 최종 16 명 (한맘 7 명, 예수 성심 5 명, 해밀턴 4 명)이 리따 수녀님, 회장, 부회장의 면담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. 회원 여러분의 좋은 표창으로 인하여 많은 지원자가 신청하였음에 감사 드립니다.

기도 부탁 드립니다

- 부회장님 모친(남정술)과 길우배 형제님 여동생(길미자 베로니카)의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위하여...
- 현재 양로원에 계시거나 병환 중이나 수술을 앞두고 있는 회원들을 위하여...

사부님 영성의 향기 (5)

"금메달"

봉사자 이선영 ofs

전임 교황 비오 11 세의 말씀대로 "프란치스코처럼 주 그리스도의 모습과 복음생활의 양식을 더 생생하고 더 비슷하게 보여 준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을 '위대한 왕의 사자'라고 말씀하셨고, 사람들도 그분을 '제 2의 그리스도'라고 기탄없이 불렀습니다. 그 당시 사람과 후세의 사람은 그분을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. 결국 그분은 지금도 인류의 눈앞에 여전히 살아 계시고, 앞으로도 계속 살아 계실 것입니다." (교황 바오로 6 세의 사도적 서한 '세라핌적 사부'에서)

지난 8 월 8 일, '하나의 세상, 하나의 꿈(One World, One Dream)'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2008 베이징올림픽이 개막되고, 이튿날 한국 유도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남자 60Kg 급 전 경기를 한판승으로 장식하며 한국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최 민호(28 세)의 불굴의 투지와 정신력이 화제가 되었지요. "얼마 남지 않은 올림픽! 정말 힘들었다. 죽을 것 같은 고통, 하루하루 눈물로 보냈다. 그 눈물이 나에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다. 후회 없이 운동했다"라고 최 민호가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적었고, 우승 후 인터뷰에

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. “운동하는 게 너무 좋았고 지쳐서 쓰러져도 행복했다. 2003 년 세계선수권대회 때는 강한 정신력으로 우승했다면 이번은 훈련 그 자체가 행복의 연속이었다. 금메달은 내 생일 최고의 선물이다.”

“하느님께서 금메달을 수여하신다면 성인, 성녀 중에 누가 받을까?”라는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금메달 심사기준은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델이신 예수님께 누가 가장 근접하는가가 아닐까요? 그렇다면 당연히 ‘제 2 의 그리스도’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스승이신 성 프란치스코 사부님이 금메달 감이겠지요. ‘완덕’이란 경기에 함께 출전한 우리 프란치스코들도 최 민호 선수와 같이 뼈를 깎는 고통스러운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악습을 고치고 하느님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맛 드리지 않았던 사부님의 모범을 본받아 달릴 길을 다 달렸을 때(2 티모 4,7-8),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으로부터 우리 모두 금메달을 받도록 합시다!

회계 보고

2008 년 7 월 31 일 현재

내역	전월 이월금	월 수입금	월 지출금	현 잔고
회비	\$6,988.47	\$540.00	\$802.28	\$6,726.19
선교 후원금	\$4,060.43	\$750.00	0	\$4,810.43
도서 구입	\$578.83	\$40.00	0	\$618.83

제 8 차 북남미 연수회에 다녀와서

허 영식 스테파노 ofs

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로스앤젤리스(LA) 지역 성 프란치스코 형제회 주관으로 개최된 제 8 차 북남미 재속프란치스코 연수회는 태평양 연안의 말리부 지역 언덕에 위치한 아름다운 피정의 집 Serra Retreat Center 에서 7 월 31 일(목)부터 8 월 3 일(일)까지 3 박 4 일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. 이번 연수회에는 캐

나다 형제회 14 명을 포함하여 21 개 형제회에서 141 명이 참가하였습니다.

7/31(목) 오후 4 시에 LA 형제회 영적보조자이신 Chris Thiel 신부님 주례의 개막미사로 시작된 연수회는 친교와 산책의 시간, 참가 형제회 소개 등으로 이어졌습니다. 8/1(금)에는 김 기수 신부님의 “프란치스코 소명” 강의와 길 봉옥 데레사 수녀님의 “프란치스코의 삶”에 대한 강의, 저녁에는 참회예절, 고백성사 시간이 주어졌으며, 8/2(토)에는 필라델피아 형제회장 박원규 바오로 형제의 “재속프란치스코 소속감”에 대한 강의와 Thiel 신부님의 강의와 김 재섭 신부님의 “영성”에 대한 강의, 그리고 10 개 그룹 별로 토의와 발표가 있었고 특강으로 뉴욕 형제회원이 윤경 자매의 “ECO Spirituality” (환경영성)과 김 기수 신부님의 E.M.에 관한 소개 말씀이 있었습니다. 저녁에는 송별의 밤(각 형제회의 장기자랑)이 있었는데 우리 형제회는 2 등, LA 형제회 1 등 시상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.

8/3, 주일에는 작은형제회 한국 관구장 오 상선 바오로 신부님의 강제가 있었는데 강의 내용 중 몇 가지만 인용한다면, 내년 4 월 아씨시에서 1 회 및 TOR 의 돛자리 총회인 OFM 성령강림 총회를 3 년 전부터 준비 중인데 내년을 프란치스코회의 재 창설 원년이라 생각하여 (1) Centering 중심두기 (2) Concentrate (함께)집중 (3) De-Concentrate 담장 (경계)허물기 등 재 창설에 관하여 말씀해주셨습니다. 2010 년 제 9 차 연수회는 브라질 성 보나벤투라 형제회가 주최하기로 결정되었으며 관구장님 주례로 거행된 입회식을 겸한 파견미사에서는 알라스카와 필라델피아 형제회 소속 8 명의 형제 자매들이 입회하여 열광적인 축하의 박수를 받았습니다.

제 8 차 연수회는 LA 형제회의 정성어린 준비와 봉사로 참가 형제자매들의 사랑과 우정으로, 신부님들과 수녀님의 영성 지도로, 형제적 사랑이 넘치는 기쁜 만남의 잔치로 아쉬운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.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신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을 드립니다.